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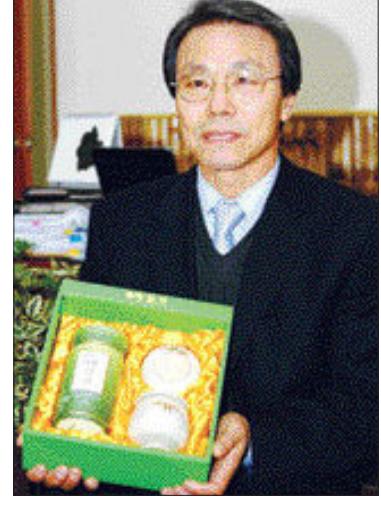
고유기, 환율하락에다 소비침체 등 위기의 2006년이 지난가고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중소업체들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이런 난관을 해쳐야 한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는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향토 우수기업을 찾아 새해 계획과 힘찬 포부를 들어본다.

2007 도약하는 향토우수기업

① 담양 대나무건강나라

대일 '웰빙음료'... 매출 100억 도전



담양 특산물인 대나무를 대일차로 만들어 빙하트를 전 대나무건강나라(대표 유영근·56<사진>·담양군 금성면)는 2007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았다.

대나무건강나라는 지난해 10월 한국야쿠르트와 대일음료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야쿠르트측이 전문가들을 동원, 대내외 소비자반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 초 나올 예정이다.

유 대표는 "현재 국내 음료시장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음료의 진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한국야쿠르트의 기존 판매망에 대나무건강나라가 대일음료를 런칭시킬 경우 연간 50억~100억원의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나무건강나라는 대일 음료의 품질개선과 함께 대일차 앤솔 및 대일차 캔, 무기질강화 요구르트, 피로회복 스포츠음료 등의 개발을 서

한국야쿠르트와 공동 판매망... 대대적 판촉

약리효능 입증... 러시아 등 유럽시장 공략도

두르고 있다.

특히 전남대 등과 산학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대나무의 약리작용을 이용한 기능성 쌀엿, 아이스크림, 식이섬유강화 뿐만 아니라 대나무건강나라가 이처럼 바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

에서 비롯됐다. 이미 1994년부터 유 대표는 '대나무 이용확대를 위한 건강효능성분 연구' '죽엽의 약리효능 동물실험 연구' '대일김파의 개발·상

품화 연구' 등 성과물을 축적해왔다.

회사설립 이듬해 스위스에 15만달러 규모의 대일차를 수출한데 이어 미주 및 동남아시아에 수출협상에 들어갔다. 수출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ISO9001, 2000 인증과 HACCP(EQAAICC) 인증을 획득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2004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과 군납을 계기로 대일차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수출도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이듬해 스위스와 20만달러 2차 수출, 미국 주주인터내셔널과 20만달러 수출, 일본 등과 20만달러 수출, 캐나다 일본 등과 각각 1천만원 규모의 테스트 마케팅을 수출계약이 뒤를 따랐다.

김종선 상무는 "수출규모는 연간 8억5천만원 매출의 35% 수준에 불과 하지만, 러시아 등 유럽쪽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올해 수출전망은 아주 밝다"면서 "특히 대일분말을 이용한 대일갈비, 대일냉면, 죽엽 카스테라 등이 자리매김할 경우 국내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농본초경' 등 옛 문헌과 최근 대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대나무잎은 암을 비롯해 고혈압·증풍·뇌졸증·간질병 등의 예방 및 치료에 뛰어나며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치질에도 좋고, 숙취해소와 이뇨작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위생복을 착용한 대나무건강나라 직원들이 깨끗하게 씻은 대일을 분말로 만드는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올 제조업경기 개선될 듯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올 경기가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고용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경기개선이 지역 체감경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이상 광주·전남지역 기업 319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100으로 2006년(92)에 비해 8포인트 상승했다.

또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93으로 전년(90)보다 3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원인은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로 내수판매 전망 BSI가 101에서 108로 상승하면서 매출전망 BSI도 104에서 107로 올랐기 때문이다.

다면 채산성전망 BSI가 소폭 하락(86→83)한 가운데 설비투자전망 BSI(107→91)와 고용전망 BSI(111→101) 모두 하락해 기업들이 경기호전을 예상하면서도 수의성 악화를 이유로 투자에는 과감히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국민銀 DTI 40% 규제 모든주택에 적용

시중銀 초강력 억제... 가계부담 커질 듯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DTI(총부채 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입장이 '초강력 억제'로 급선회하고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도를 크게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시중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해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의 극소수 주택에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DTI는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DTI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담보물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적거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출기간이 짧으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소득 3천만원인 소비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고정금리 5.58%, 만기 15년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면 3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DTI 40%를 추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분의 1인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의 조치를 뒤따를 경우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도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등

▲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월 소득 대비 월 부채비용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5.77%(고정금리)에 만기 15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원 정도다.

주택대출 제한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7~2.0%에서 0.9~2.2%로 높아졌다. 신한은행도 주택대출 승인권을 본점이 갖는 등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책을 구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분명한 일부 실수요 고객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겨울옷 최대 80% 깎아드립니다

광주 '빅3' 백화점 오늘부터 바겐세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새해 벽두부터 황금돼지해를 기념하는 바겐세일에 들어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빅3' 백화점들이 2일부터 21일 사이에 겨울의류 1일 및 기획상품전을 열고 1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한정 황금돼지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일부터 신년 축하상품전과 함께 유명 브랜드 세일 하이라이트를 전개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5일부터 21일까지 바겐세일과 함께 다양한 황금돼지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내점 고객중 추첨을 거가는 것을 비롯해 라코스떼·헨리코튼·헤드·이동수·리바이스는 30%, 온앤온·올리브데 올리브는 20%씩 할인 판매한다.

또 패션잡화에서 신사 속녀의 류까지를 정상가의 40~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황금돼지 복상품전'을 마련, 코파라반 핸드백을 50% 짚 7만9천원~10만원에

광주·전남지역 기업체

지난해 임금인상을 6%

2006년 광주·전남지역 기업체의 임금인상률은 임금 총액 기준 6.0% (전국평균 5.4%)로 전년 4.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엄홍

섭)은 근로자 30인 이상 회원업체 70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 임금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임금조정 결정 과정에서 기업들은 '물가상승률'(37.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의 지불능력'(28.3%), '타기업 임금 수준 및 임금조정 결과'(22.7%), '노조의 요구'(7.6%), '직원복지(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는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의 전통브랜드입니다.



목재가공산업의 모든 것 "자이리"
이전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 것은
"자이리"와 함께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가구설 kế/사우나/스파 - 조구사업
- 목재제작사업 - 목재주제사업
- 목재가공업 - 목재수출업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 조합
대표전화 061-337-5535
팩스 061-334-5535